

내러티브 지식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강현석¹⁾, 이윤복²⁾, 신경애³⁾

In search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Hyeon-Suk Kang¹⁾, Yun-Bok Lee²⁾, Kyung-Ae Shin³⁾

요 약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철학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들이 많다. 과거 실증주의적 개발 방식에서 구성주의적 방식으로의 변화가 대표적인 조짐이다. 포스트모던적 변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흐름들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 내러티브 진화로 논의되는 담론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개발 철학과 방식의 변화가 지칭하는 의미가 매우 폭넓고 학교 실천가들에게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데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방식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최근에 크게 강조되고 있는 내러티브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기반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이 다양한 방식 중에서 내러티브 개발 방식의 핵심은 지식 구성에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들이 지식을 내러티브적으로 구성한다는 데에 있다. 과연 내러티브적인 지식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존의 방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한 지식 구성 방식은 교육목적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교사의 전문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주요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문헌 리뷰와 철학적 논의를 거쳐서 탐구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새로운 지식 구성방식에 주목할 경우 현재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나 교과서 구성은 상당한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심어 : 내러티브, 내러티브 지식 구성, 교육과정 개발, 내러티브 사고

Received (March 9, 2018), Review Result (March 18, 2018)

Accepted (May 1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email: hskang84@knu.ac.kr

2 Teacher,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email: beat55@hanmail.net

3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email: bijzu@hanmail.net

Abstract

The terrain of curriculum studies is undergoing important changes. In curriculum design, there are many changes focusing on learner's construction of meaning. We generally speak the new methods for reinventing school curriculum as key engine. This article examined the methods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According to Bruner,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fluenced the mode of curriculum development. Narrative refers to the mode of thinking, structure for organizing our knowledge, and a vehicle in the process of education. Traditionally, school knowledge is provided by specialist. Then teachers mainly give certain contents to students for delivering curricular contents. But current of schooling have been changed to narrative turn. We should approach to knowledge construction with narrative mode of thinking and story making. Curriculum development aims at educational objectives, contents,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assessment following the these narrative tints. In this study, we have explored the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Research methods we adopted are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narrative turn and its applicative agenda in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Keywords : narrative,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curriculum development, narrative thinking, textbook construction

1. 서론

학교교육의 핵심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놓여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핵심에는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이다. 즉, 학생들에게 가르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과 관련되는데, 지식을 어떻게 보고, 가르치며,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교교육의 교육활동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지식 구성 방식은 주로 체제접근이나 실증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였으며,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대어 주어진 지식을 잘 조직하는 일이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1].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철학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들이 많다. 과거 실증주의적 개발 방식에서 구성주의적 방식에서의 변화가 대표적인 조짐이다. 포스트모던적 변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흐름들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 내러티브 전회로 논의되는 담론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변화된 새로운 방식에서는 지식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과거 실증주의 방식에서 구성주의로의 전환은 기존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구성, 맥락적 구성과 해석, 주도적 학습의 과정 등 중요한 화두들이 학교교육이나 교실 수업에 큰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존재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다양한 접근들이 회자되어 많은 혼란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가르치는 문제가 핵심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성찰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내러티브적 구성이나 구성주의적 변화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내러티브적 지식 구성이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기반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이 다양한 방식 중에서 내러티브 개발 방식의 핵심은 지식 구성에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들이 지식을 내러티브적으로 구성한다는 데에 있다. 과연 내러티브적인 지식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존의 방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한 지식 구성 방식은 교육목적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교사의 전문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다 최신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내러티브 이론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개발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Bruner의 내러티브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내러티브 지식 구성의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내러티브 지식 구성 방식이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분석과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실제 교육현장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현상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념과 철학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탐구에 해당되며,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2.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점 분석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교실 문화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발로서, 실증주의적 인식론(positivist epistemology)에 근거한 지식은 보편성과 불변성을 지닌 객관적인 실재가 되며 인식 주체와 그 맥락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2]. 이러한 실증주의 지식관에서는 인식 주체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과 실재만을 지식을 본질로 인식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존의 교육과정 이론의 패러다임을 지배하였던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지식과 행동의 위계로 특징지어진다. 이로 인하여 교과서에는 합리적 사고, 경험적 지식, 논리적 분석과 증명, 과학적 사실과 이론 등이 학교교육과정의 주된 내용으로 선정되어서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 체제는 실증주의 지식관에 의한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인데,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 이성에 의한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학생의 합리성과 인지적 이해를 강조하며, 탐구와 실험을 통한 명제와 증명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한 가지 사고양식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고 양식과 능력만을 강요하게 되어서 편향된 학습과 사고 양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교실 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의 자아실현, 즉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려는 교육 이념은 성취될 수 없다. 인식 주체인 학생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재만을 지식의 본질로 인식 하였던 전통적 지식관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학교교육이 곧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한 쪽 방향에 치우치게 되는 지식관은 옳지 못하다.

둘째, 의미 구성의 측면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교실의 수업을 지배하였던 객관주의 인식론은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 대상의 실재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도록 하고, 지식은 단일한 실재라고 가정함으로써 인식 주체자와 객체간의 앎의 과정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식의 생성적인 본질과 다원적인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3]. 이상과 같은 기존의 측면은 객관적인 외부의 실재에 주목을 하는 발견으로서 실증주의 인식론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보다는 외부 세계의 객관적 질서를 중시한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학교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전달식 교육에 머물렀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식은 확인되고 파악되어지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인식 주체인 학생들이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Shulman(1986)도 수업의 효율성은 교사와 학생의 의미 형성 및 전달, 의사소통에 의해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4]. 또한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명체를 지닌 교사와 학생은 생물체와 같은 학교에서 자신이 처한 조건, 상황,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고유한 자치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의 의미 구성은 인식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간의 능동적이고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의미와 실재의 형성, 자아 형성까지 포함하는 해석적 성격의 인식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교사는 수업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업을 조직하고 교과의 개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김재춘(2012)은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에서부터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수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교사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배제되는 것을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교육내용의 전달만 있을 뿐 학생들의 의미 창조와 수정, 재구성이 어렵다고 하였다[5]. 교과의 지식은 외부 세계의 바깥에 있는 인식론적인 결과물을 학생 개인이 머릿속으로 이해한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며, 학생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Bruner(1964)도 지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구조와 의미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개념적인 발명품이라고 하였다[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의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며, 학생의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로서 교과에 관한 맥락과 의미 구성은 단절되었고 폐쇄적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과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교사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은 교과의 지식은 어떻게 학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과 의미의 구성을 소홀히 다루었으며, 학교에서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경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내러티브 지식의 구성과 교육과정 개발 방안

3.1 내러티브 사고와 지식의 구성 구성

앞의 절에서 제시한 문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내러티브적인 사고에 의한 지식의 구성인데, 이 방식은 기존의 지식 구성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Bruner에 의하면, 실재를 구성하며 경험을 배열하는 상이한 방법의 두 가지의 인지적 작용, 다시 말해 두 가지의 사고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두 가지 사고 작용 중의 하나는 '좋은 이론, 엄격한 분석, 논리적 증거, 건전한 논증'을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와 다른 하나는 '좋은 이야기,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 역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내러티브적 사고(narrative thought)로 구분된다[7]. 첫째,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은 Tyler가 대표 학자로서 전통적 지식관이며 실증주의적인 인식론을 보여준다. 이는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며, 교과의 내용은 검증 및 논증이 된 지식과 개념이 제시되며,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로서 불린다.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은 경험적 발견을 중시하는 과학, 논리, 수학 분야에 활용이 된다. 둘째,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은 Bruner가 대표 학자로서 근대적 지식관이며 해석학적 인식론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의도와 행위를 중시하며, 교과의 내용도 인간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시되는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에 활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

[Table. 1.] paradigmatic thought and narrative thought

	패러다임적 사고	내러티브적 사고
시기	전통적 지식관	근대적 지식관
대표 학자	타일러(Tyler)	브루너(Bruner)
인식론	실증주의적 인식론	해석학적 인식론
교과 내용	지식과 개념	인간의 경험과 의미 해석
교과 분야	과학, 논리, 수학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
교육과정 체제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	내러티브 교육과정

기존의 학교 현장을 지배하였던 패러다임적 사고는 이론적, 논리적, 추상적, 과학적인 사고로서 지식과 개념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하고, 상황적 맥락에 의해 그 논리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내러티브 사고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맥락, 교류, 행위에 의도 등을 묘사하여 구체적이며 상황 특수적인 사고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의 목적, 의도, 행위,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맥락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강현석(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패러다임적 사고를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었는데, 학교가 기르려고 하는 마음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방법을 강조하려면 내러티브적 사고를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8]. 요컨대, 내러티브 사고는 교육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인간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의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 재구성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형성해나가고 자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교육과정이 학생의 경험과 상황, 시간과 공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와 교육의 관계는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내러티브 사고에 의한 새로운 지식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1]. 첫째, 학습자의 경험을 통한 지식과 의미 구성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는 자연 세계 보다는 주로 인간 행위자의 문제 즉, 인간 행위자의 경험과 의도, 목적과 가치, 관계와 맥락 등과 같은 삶의 문제를 주로 다루며,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행한 경험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탐색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선정하며,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해서 의미를 생성하는 인식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식의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 사고에 기초한 학습의 과정은 직선적이며, 누적적이기보다는 이전에 배운 학습 내용을 단서로 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면서 이전의 수준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관점에 의해 재해석 되는 과정이다. 즉 이전에 배운 내용에 기초로 다음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나선형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식의 해석적 순환을 통해서 가능한데, 내러티브에 근거한 반성적인 재조직과 해석적인 순환에 의해 가능하다.

셋째, 지식의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핵심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이야기를 활용하며, 내러티브 사고는 학생이 삶을 이해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지적 사고 양식으로서 삶에 관한 의미를 만들고, 의미 구성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다른 학생과의 협동적,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구성을 통해 내용을 특정한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적합한 의미가 재구성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내러티브 사고에 의한 지식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 구성에 의한 방법을 중시하며, 이때의 지식은 이전에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단서로 하여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나선형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발전을 하고, 학생의 삶에서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중요시한다.

3.2 내러티브 지식 구성 방식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방안

패러다임적 사고에 의한 교육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교과서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전달하는 양상으로 이해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속에서 전달되는 지식과 기능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 간주되었다[9]. 이에 반해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한 교육은 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만들어 내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과 지식, 개념, 학습 기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 및 교과 내용과 지식에 대한 의미 교섭과 창조 과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교육과정의 목표(curriculum objective)는 측정 가능하게 상세히 기술된 목적이나 최종적인 상태로써 교육과정의 설계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학습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목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등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제4차 혁명기의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소통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며, 소통과 공감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자아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자아 구성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해서 학교의 학습활동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때 자아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내러티브 사고양식과 이야기 구조에 기반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기존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 의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에 치우쳐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적 지식에 의한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 역시 인간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학생의 일상적 삶, 경험, 체험에 기반을 한 지식을 교육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Bruner(1996)는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내용도 내러티브와 이를 표현하는 이야기 구조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10]. 다시 말해 내러티브 사고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삶, 경험이 교육내용으로 선정되고, 이야기 구조로 조직된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며, 주체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은 내러티브적 측면에서 사회 ·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교육목표가 자아구성과 발전이며 이를 위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내러티브 사고양식에 기반을 한다면, 교수-학습방법은 내러티브 사고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11].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의 폭과 깊이를 나선형적으로 재조직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교과 내용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세계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아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수-학습방법은 학생이 다른 학생과 소통하고 협동하며, 학습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세계를 탐구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교육평가는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실시되는 총괄평가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결과중심의 서열 세우기의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할 때 한 학기마다 1, 2회 실시되는 총괄평가 보다는 수업목표 달성여부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performance evaluation)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가 내러티브 사고를 자극하는 학생들의 삶, 맥락, 경험에 기초하는 유용한 과제를 수행평가 과제로서 제시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또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서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러티브에 의한 평가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과정을 촉진하고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각각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공통적으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은 내러티브 사고에 기초하여 재개념화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Bruner(1990)는 우리가 구성하는 세계와 우리 자신은 의미 구성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12].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내러티브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 학생 삶의 일부분이며, 학교라는 문화의 틀 속에서 다른 학생과 생활을 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할 때 앞으로의 학교 교육과정은 내러티브에 기초하여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대의 학교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러티브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근대의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지식과 교사중심의 수업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에서 합리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패러다임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비판의 근거를 내러티브 인식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지식구성 및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사실과 지식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로서 인식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과 개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학생의 맥락적인 삶과 해석적인 측면을 경시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교

육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러티브는 학생의 행위, 의도, 경험, 의미 구성에 의한 방법을 중시하고, 학생의 삶 속에서 나선형적, 맥락적으로 재구성되는 지식을 강조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주입하는 지식보다는 능동적인 의미의 구성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교육과정 개발의 4가지 측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며,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 원리이자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삶의 일부분이며 그곳에서 장차 성인이 될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연습과 실천의 공간이라면, 학교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지식은 학생들에게 맹목적인 암기와 반복 숙달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경험하고 실천하여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실수준에서 인간 발달과 지식구성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내러티브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이나 교육과정이 인간 삶의 다양한 이해방식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육과정은 다른 렌즈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내러티브 지식 구성으로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Kang, Y. B. Lee, & K. A. Shin(2017). In search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Convergence Research Letter*, (2017), No. 4, pp. 439-443.
- [2] Y. B. Lee. and H. S. Kang. A preliminary study on the cultural ecology of instruction: Based on the Bruner's idea.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 Vol 6, No.16, pp. 725-751.
- [3] H. S. Kang. A study of the nature of knowledge in Bruner's curriculum theory focused on the structure of knowledge and narrative. *Philosophy of Education*. (2009). Vol.1, No.38, pp. 1-34.
- [4] Shulman, L.(1986). Paradigms and research programmes in the study of teaching. In M. Wittrock(ed.), *Handbook of on teaching*(3rd), New York: Macmillan, pp. 3-36.
- [5] J. C. Kim(2012). *Curriculum*. Seoul: Kyoyookbook.
- [6] Bruner, J. S(1964). On going beyond the information given, In *Contemporary approaches to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7] Bruner, J. S(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8] H. S. Kang. In search of the possi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curriculum excluded in paradigmatic curriculum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05). Vol.23, No.2, pp. 83-115.
- [9] H. S. Kang and J. E. Lee. Narrative and its implication to disciplinary converg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6). Vol.6, No.11, pp. 491-498.
- [10] Bruner, J. S(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11] I. S. Cho. and H. S. Kang.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shcooling based on two theories of narrative. *Philosophy of Education*. (2016). Vol.3, No.60, pp. 165-191.
- [12] Bruner, J. S(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